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지난 5월 26일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50회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수상자의 면면을 보니 탐욕과 분노로 얼룩진 각종 범죄의 아수라 같은 세태 속에서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경찰관의 박봉 속에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 20여 년간 돌보고 보듬는 선행을 한 분, 수많은 어려운 노약자에게 무료 안과 시술과 각종 의료봉사를 국내외적으로 하며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의사, 생선가게를 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천사 같은 분, 불우하고 외로운 학생들을 돕는 하숙집 여주인 등. 이들의 행적 하나하나를 읽어 보면, 아! 이 분들이 바로 '부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부처님이 아직 이 세상에 계시니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절망할 필요가 없겠다는 위안이 든다.

동시에 연가니 무아니 자비니 하면서 붓다의 사상을 율조리면서 어려운 이웃에 소홀한 내 자신이 초라해진다. 동시에 붓다의 자비 정신이 살갑게 다가온다.

근래에 한국 불교계에서는 '깨달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새롭게 거론되면서 다양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이 논쟁의 긍정적인 의미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한국불교가 가진 문제점이 거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불교는 깨달음 지상주의 또는 깨달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고 단언한다. 깨달음과 자비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 깨달음에서 자비가 나오고 자비에서 깨달음이 나온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상구보리'는 잘난 형님이 되었고 '하화중생'은 못난 동생이 되어 깨달음의 그늘 속에서 자비는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붓다 사상의 근원은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 즉 '정토'를 만드는 자비 정신에 있다.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자비란 무엇인가?'라는 하두를 던지고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불교의 나아갈 바를 가름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자비는 사랑, 배려, 겸양, 절제, 용기 등 일반적인 윤리적 덕목

한국불교 신비주의에 빠져

자비 실천행이 절실할 때

종합학문적 접근도 필요하다

을 포괄하고 통합하는 덕목이다. 때문에 그 만큼 추상성이 높다. 이 추상성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찾는 지열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비 실천은 깨달음보다 어렵다고 본다. 또한 자비 실천의 방편은 깨달음의 방편보다 어렵다고 본다. 한국불교의 긴 흐름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고승들은 많은데 왜 큰 보살행을 한 스님들은 왜 많

지 않은가?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랑의 실천자를 왜 불교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

불교는 자비라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처럼 큰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물을 뜰 생각을 안하고 그릇 자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비 실천은 결코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비라는 큰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비 윤리학을 정립시키고 자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정교한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비에 대한 종합학문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즉 현대사회에서 작동할 자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섭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불교는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지만 자비 실천에 대한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자비실천은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자비란 무엇인가?' 이것이 한국 불교를 살리는 화두이다.

社說

행자 '중도 퇴사' 막을 대책 필요하다

조계종의 올해 중점 사업 중 하나가 출가자 확대다. 하지만 정작 출가하더라도 중도 포기자가 많다면 별 소용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조계종 행자 교육 부재와 시대에 맞지 않는 수직적 위계 질서는 행자들의 중도 퇴사를 유발하고 있다.

이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가 5월 31일 출가지도법사 워크숍에서 발표한 행자 퇴사 원인 분석 보고서에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576명이 행자 등록을 했고, 410명이 퇴사했다. 이는 전체 26%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257명이 등록해 70명(27%)이 퇴사했다.

이렇게 높은 퇴사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학연구소가 지난 3월 10일 50기 수계교육을 받은 행자 8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81명 중 67명(82.7%)이 중도 포기를 생각했다. 대다수가 '강압적 명령·분위기'를 원인으로 꼽았고,

행자 교육시스템 부재, 타행자와의 마찰, 과도한 운력(16건)이 중도 퇴사를 생각하게 한 이유라고 답했다. 또한 수계교육자 71%가 누구의 도움 없이 어려움을 이겨내 현재 행자 지도프로그램이 부재함도 보여줬다.

그나마 교육원이 하반기부터 교구본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실시해 본사 출가 행자들을 지도하고 관리·상담의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출가지도법사 워크숍에서 제안됐듯이 시대에 맞는 획기적인 진흥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는 지지부진한 중앙차원의 '상설 행자교육원'도 포함된다.

출가자 확대, 특히 양질의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 '20~30년 전 어려웠던 시절에도 공부하고 수행했다'는 주장은 발전적이지 못하다. 획기적인 진흥책을 고민할 때다.

달라이라마 방한 더 빨라져야 한다

달라이라마 방한이 가시화되고 있다.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를 비롯한 많은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중국정부의 입장 변화로 달라이라마 방한이 가능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월 2일 방한추진위가 달라이라마 방한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달라이라마, 평화와 공존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포럼은 무르익고 있는 달라이라마 방한 분위기에 맞게 달라이라마 방한이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과 그 이후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논의 결과는 사뭇 진지하다. 달라이라마 방한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면 한국불교계에 좌절감을 줄 것이라 경고부터, 국민적 행사로 거듭나기 위해 종교행사의 틀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

다. 또 달라이라마 방한이 이뤄진 이후 한국불교계가 추진해야 할 변화에 대한 주문도 쏟아졌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내한이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한다. 달라이라마가 방한하면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포럼에서 주제발표한 조성택 교수의 말과 같이 가장 먼저 '주체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불교계가 주인공이 되어 불교혁신과 불교사상 실천 등에 앞장서고, 달라이라마가 이에 공명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자칫 달라이라마 방한 행사에 불교는 들러리를 서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달라이라마 방한을 기점으로 불자역의를 변화시키는 등의 일련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발언대

구역역 스크린도어 사고 논란

참혹한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로 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가 숨졌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다. 사고 방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그 근본 원인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불교계와 SNS상의 목소리를 모아보았다. <편집자주>

안전·생명 중시 사회로 나아가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성명

서울 1~4호선 '서울메트로'는 사고가 날 때 마다 안전조치·재발방지·2인 1조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재발, 삼당이다. 3년 사이에 똑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서울메트로는 이에 대해 똑같은 대책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메트로는 승강장 관리를 최저임찰을 통한 외부 용역들에게 주고 있었으며, 용역업체는 경비절감을 위해 외주업체 직원 1명이 10개 이상의 역을 담당하도록 했다. 안전보단 비용절감을 우선시한 구조다. 이는 바로 안전과 생명을 비용으로 바꾼 전형적인 '세월호 복사판'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의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세상이 바뀌어 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각 사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안전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간접고용 형태, 즉 용역·하청·재하청이 만연한 고용 구조 때문이다. 원청은 오직 기업이윤이 우선이며, 하청이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책임진다. 이 형태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정규직 노동자에 턱없이 모자라는 임금을 받으며 조선소와 지하철, 건설현장 등서 죽어나가는 용역들, 원청에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또 책임 지지 않는 이 고리를 끊지 않고선 비정규 노동자만 죽어갈 뿐이다.

많은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도 돈에 눈이 멀어 온갖 불법이 뒤섞인 안전 불감증 사고였던 사실을, 공기업인 서울지하철공사는 잊었던 말인가. 서울지하철은 이번 사태에 최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안전 보호하고 노동자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완벽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SNS에서는

@jtg9762

굶다시피 하며 일한 박봉을 매달 엄마에게 건네던 착한 아들. 한 끼 식사용 컵라면, 끝내 그걸 유품으로 남긴 채 떠난 젊은 영혼. 피도하며 울부짖던 그 엄마는 시장과 서울메트로의 공식 사고가 있는 후에야 장례를 시작했다. 가여운 고인의 명복을 빈다.

@zsemju62

이 안타까운 사건을 그저 몇 마디로 무마하지 마세요. 유가족 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남아 계신 직원들을 위한 근무환경을 만드세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

@Nirvana3626

서울메트로의 문제뿐이겠는가. 어느 개인의, 행정조직만의 문제가겠는가. 젊은 노동자의 처우가 없는 희생 뒤 가려진 이 땅의 비민주적 노동현실을 간파해선 안 될 것

이다. 어린 노동자의 죽음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oliveunix

구역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유명을 달리던 고인께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cheolsoo0919

구역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에 거듭 애도를 표합니다.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해당분야 청년도 동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열약한 노동환경에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nurindale

기다립 읽는 사회, 구역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부친다. 우리의 한계는 가해자로 묘사되는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를 대충들조차도 저임금, 초과노동의 피해자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황폐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김홍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프로 오프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절로 문의전화 1644 - 9108